



2017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모범답안





[문제 1]

[문제1-1] 제시문 (가)의 '이사'와 (나)의 '박지원'이 비판하는 대상(또는 현상)과 그 이유를 각각 설명하고, 이들의 공통점을 제시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25점).

[문제1-2] 제시문 (다)에서 소개된 '학문의 병적 상태'를 요약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25점).

[1-1] 제시문 (가)에서 이사의 비판 대상은 당시의 유학자들이다. 이사는 이들이 새로운 법령과 도리가 제정되었음에도 사사로이 익힌 학문과 옛일을 근거로 조정을 비판하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다고 보고 있다. 이사는 이들로 인해 황제의 권위가 추락하고 봉당이 만들어질 것이라 경고한다.

제시문 (나)의 박지원은 글을 짓는 데 옛것의 모방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박지원은 이들이 비슷함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결코 진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 껍데기만 흉내 내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뜻을 놓친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사와 박지원은 서로 다른 시대의 서로 다른 대상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것에 집착하여 새로운 것을 도모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의 비판에 공통점이 있다. (417자)

[1-2] 제시문 (다)에서는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을 조화롭게 추구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만 집착하는 현상을 '학문의 병적 상태'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병적인 태도에 따라 옛 것에만 집착하는 이들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시샘하여 새로운 것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새로운 것을 편애하는 사람은 과거의 것을 존중하지 않고 아예 말살해 버리려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학문이 추구해야 하는 길은 어떤 것일까? 제시문 (나)를 통해 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시문 (나)는 옛날의 글도 그 글이 지어질 당시에는 현대적인 것이었음에 주목하여 옛것과 새것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 이를 학문에 적용시켜 보면 오래된 학문에 담긴 근본적인 뜻을 이해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을 찾아 탐구하는 것이 학문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길임을 알 수 있다. (431자)



[문제 2]

[문제2-1]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인간의 인지 기능과 인공지능의 차이를 기술하고,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모라베크의 역설’ 현상의 이유를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25점).

[문제2-2] 제시문 (다)를 참고하여, 제시문 (가)의 ‘이라이자’가 만일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지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25점).

[2-1] 인공지능은 상징적 기호들로 표현된 프로그램에 의해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논리적 수학적 으로 표현 가능한 업무만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숫자와 언어로 표현된 논리적 완결성을 갖춘 계산 이나 추론 과제는 인간보다 훨씬 잘 수행한다. 이와는 달리 인간의 인지 기능의 기초가 되는 뇌에서 는 신경세포들 간에 신호를 주고받으며 생물학적인 과정을 거쳐 지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인간은 사물 구별이나 감각운동 능력과 관련된 과제에서 인공지능에 앞선다.

모라베크는 감각운동 능력이 오래전부터 진화해온 것인데 비해,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는 진화 의 역사가 길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에게 쉬운 과제인 감각운동 능력은 알고리즘으로 과제를 처리하는 컴퓨터에게 어렵고, 인간에게 어려운 계산이나 추론 과제는 상징적 기호들로 표현된 프로그 램으로 구동되는 컴퓨터에게 쉽다는 ‘모라베크 역설’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448자)

[2-2] ‘이라이자’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지성을 가진 생각할 수 있 는 기계는 아니다. ‘이라이자’는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입력된 문장을 알고리즘적으로 바꿔 써서 대화를 생성할 뿐 문장의 의미를 처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어 방’에서 존이 한자를 시각적으로 판별하여 규칙에 따라 한자 배열을 조작하여 문장을 산출해 내지만, 이를 두고 존이 중국 어를 이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라이자’는 문장을 구성하는 기호를 어떻게 정렬해야 하는지 통사론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고 있 지만 형식적 기호 조작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통사론적 처리만으로는 인간의 지성처럼 의미 론에 따라 기호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호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튜링 테스 트를 통과했다하더라도 ‘이라이자’가 의미를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인 지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460자)